

# 오직믿음 완전믿음을 로마까지 증거한 70인 제자 바울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레위기 11:45, 로마서 1:17

정윤돈 목사님

- \* 레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 \*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울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절대미션을 구체적으로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노인노래교실, 요가,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120 살 까지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다 미션이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올인할 미션을 붙잡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의 환상,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램네티어린이집, 애프터스쿨 그 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한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램네티 중에 초등학교 부회장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다고 한다. 그 후로 생일파티로 여러 친구들이 모였는데 '너희 중에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 해봐.' 했더니 어떤 아이가 떨어진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가 부회장이 됐어요.'한다. 대통령이 되고, 리더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끝까지 이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 그 인물이 요셉, 다니엘, 에스겔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밋이고, 엘리트이다. 어떤 램네티가 초등학교에서 회장되었다. 이것을 그냥 보지 않는다.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속에서 미래, 환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램네티들에게 준 헤브리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미션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바탕을 마련해주어야 하는가 24 시간 생각해야 한다. 먹고 살 것 쓸 데 없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환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다. 여러분의 로마, 후대들의 로마를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레위기 11 장 45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절대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온전한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 그 방법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의 믿음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도록 기도하지만 그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다.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건강하고, 램네티들이 대통령도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자는 것이다. 이번에 chatGPT 를 이용해서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사실상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한다. 결론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다.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이다. 하나님의 차원은 과학으로 검증되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 방법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이다. 오직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한 믿음을 향해서 평생 도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믿음과 전도자의 삶과 이를 성취하고 로마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은 모델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이다.

## 1. 첫 번째로는 먼저 오직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로마서 3 장 10 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어서 로마서 3 장 23 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천국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말씀이다.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613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데만 몰입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할례, 안식일이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오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림자이며 예표일 뿐이었음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 장 2 절을 통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잘못된 지식, 율법관, 믿음관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이다. 내가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로마서를 한 학기에 100 번 읽으라고 했다. 구원을 율법으로 얻는 것인지 행위로 얻는 것인지 읽을수록 헛갈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라.' 말씀하신다. 이 내용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다. 몇 천 년 동안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4 장 2 절에서 3 절의 말씀을 보겠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나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 장 4 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례, 제사도 없어졌다. 절기도 없어졌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생겼다. 쉽게 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원수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겨우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향해 도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항상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결론을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그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내가 조금씩 겸손해지면서 거듭나기 시작한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나의 과거에 부족한 것, 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어야 해. 내가 뭐 잘난 게 있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이다. 영적 성장, 인격적 성장이 없는 것이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성취한 사람이 로마서 16 장의 인물들이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린

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오직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깊이 알 때 삶도 따라오는 것이다. 로마서 10 장 9 절에서 10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 장 11 절에서 13 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0 장 11 절에서 13 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장부터 11 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복음과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로마서 1 장 17 절 말씀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한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죄가 없으신 데도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오해받을 것 같으면 뒤집어진다.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류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신다.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하는데 그 사람도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뺨 맞고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러면서도 높이 오셨다. 자리싸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를 목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상해야 한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직장에서 왜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는 못 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깊이 목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 2. 두 번째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복음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생동안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자의 삶을 위한 절대목표이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로마서 16 장에 기록된 인물들이다. 그 사람이 로마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 것,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해도 거듭난다.

(1) 그래서 로마서 12 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복음적인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12 장 1 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이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 성공자인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없으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방법이 예배, 찬양과 몸찬양과 헌신과 봉사이다. 다음으로 12 장 2 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지원에서 살았던 친구가 청소년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다. 어떻게 사냐고 물으니가 옆에 있다고 한다. 도박하고 마약하지 말라고 하니 까 술, 담배는 기본이라고 한다. 주변에 다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만나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그 힘이 없다. 세상으로 다 끌려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따라가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살려야 하겠다. 그 시작이 강단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먼저 내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결국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12 장 전체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할지 그 구

체적인 내용을 12 장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 12 장 9 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친구들이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하고 나쁜 것은 따라간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도 미워하고 선한 것도 미워한다.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12 장 10 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야 한다. 12 장 11 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 교회에 대한 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의 한 가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12 장 12 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다. 12 장 마지막 부분인 20 절과 21 절을 함께 읽겠다. 이것이 되면 그분의 ‘전도자의 삶’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췌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어서 로마서 13 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3 장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3 장 13 절에서 14 절 말씀에서는 타락했던 젊은 어거스틴을 거룩한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타락하며 살다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다.

(2) 로마서 16 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별명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70 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장 1 절에 나오는 ‘뵈베’는 보호자로, 16 장 3 절에서 4 절에 나오는 ‘브리스카’, ‘아굴라’는 동역자, 16 장 5 절에 ‘에베네도’와 8 절의 ‘암블리아’는 사랑하는 자로, 16 장 6 절 ‘마리아’와 12 절의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로, 16 장 7 절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친척으로, 16 장 10 절의 ‘아벨라’는 인정받는 자로, 16 장 23 절의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온 교회의 식자인, 돌보는 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로마서 16 장의 인물들과 같은 역할을 잘 담당하는 70 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 결론으로 오늘은 로마서 말씀과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 21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다.

1. 첫 번째 세 가지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다. 예수, 제림, 성령의 역사이다. 이것을 하나로 말하자면 오직 예수인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직예수로 결론내야 하겠다.
2. 두 번째 세 가지는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70 현장에서 미션을 담당해야 하겠다.
3. 세 번째 세 가지는 당언, 필언, 절대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당연한 구원의 믿음과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절대목표인 로마복음화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4. 네 번째 세 가지는 일심, 전심, 지속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복음화를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하였다.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3천 제자와 237 복음화를 위한 일천만 제자를 위해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하겠다.
5. 다섯 번째 세 가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오직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재창조하는 작품을 남겼다. 그 작품이 로마서이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작품과 전도의 열매를 남겨야 하겠다.
6. 여섯 번째 세 가지는 24, 25, 영원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4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25 시를 체험하였고, 영원한 복음의 작품과 로마서 16 장의 제자들을 남겼다.
7. 일곱 번째 세 가지는 각인, 뿌리, 체질이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삶이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될 때까지 로마서 말씀을 깊이 목상하고 포럼해 보기를 바란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때까지 로마서 16 장의 70 인 제자들처럼 오직의 믿음과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서 중직자들 중에서 7 램프를 능가하는, 로마서 16 장의 인물들을 능가하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사탄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